

추도받지 못한, 양의적 정체성의 경험

— 천첸우(陳千武)의 참전 회고 소설을 중심으로

고운선*

<目 次>

1. 들어가며
2. 식민 교육의 수용과 愚民化 밀어내기
3. 타이완 출신 일본군: 전쟁 피해자, 폭력 가담자
4. 마치며

1. 들어가며

타이완은 한국과 같이 20세기 초반 일본이 제국으로 팽창할 때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받았다. 특히 1930~40년대 일제강점기 타이완에서 출생한 세대들은 전쟁기 세대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자발적 또는 강압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¹⁾ 일본 통치하에 있었지만 정식으로 ‘국민’으로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pink1208@hanmail.net

1) 陳柏棕, 「日治時期台籍日本兵任務及其境遇之探討: 以分派至中國南洋戰區為例」, 『新北大史學』第四期(2006), 33-53쪽 참고. 타이완의 경우, 한국과 달리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지원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실시된 1942년 이후 ‘志願兵’ 모집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징용’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 시기 입대한 ‘타이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은 ‘타이완적(臺籍)’을 가진 채 일본의 ‘皇軍’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타이완 출신 일본군은 이후 조선반도 출신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전범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²⁾ 무엇보다 종전 후 중국 대륙에서 8년간의 항일전쟁을 치른 국민당 정부의 통치하에서 과거의 고통을 이해받거나 위로받지 못한 채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도록 강요받았다.³⁾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천첸우(陳千武, 1922~2012, 본명은 陳武雄)는 일본이 무관 총독기(1895-1917년)를 거치면서 타이완의 무장저항을 진압한 뒤 반포한 ‘臺灣教育令’(1919) 하에서 ‘公學校’ 교육을 받고 자랐으며, 타이완인 중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군 잡역부인 軍夫나 軍屬이 아닌 ‘현역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최초의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다. 河洛語로 사교하고 일본어로 글을 썼던 천첸우는 종전 후 ‘國語(중국어)’로 글을 쓰기까지 십여 년에 걸친 침묵기를 거쳐야 했다. 중국어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桓夫’라는 필명의 시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⁴⁾ 1967년부터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을 차례로 발표하기도 했다.

완 출신 지원병’은 일본 군인의 잡역부로 대륙 중국에 많이 파견되었고 진주만 공습 이후의 ‘타이완 출신 지원병’은 현역병 신분으로 동남아시아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한 차이가 있다.

- 2) 중수민(鍾淑敏), 「타이완 B·C급 전범 연구」,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타이완사 연구소,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한울, 2018), 275-298쪽.
- 3) 周婉窈, 「歷史的記憶與遺忘: 臺籍日本兵之戰爭經驗的省思」, 『當代』第107期(1995), 林佳蓉, 「教科書中沒有的歷史: 臺籍日本兵之研究」, 『北市教大社教學報』第10期(2011.12), 73-83쪽 참고. 타이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역사 해설에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국민당의 ‘國語정책’과 ‘祖國化(중국어화) 정책’으로 인해 타이완인의 일본군 경험이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마치 금기인양 취급되었던 시절이 있었음에는 동의한다.
- 4) 현재 천첸우의 작품은 시집 『파파야 꽃이 피었다』(김상호 역, 서문당, 1996)와 『사냥』(『꿈꾸는 타이베이』 수록, 김상호 역, 한결음더, 2010)이 한국어로 소개되어 있고, 천첸우의 시 창작에 관한 연구로는 金尙浩, 「痛苦的美學: 陳千武和金光林的戰爭傷痕詩之比較研究」, 『中國現代文學』第23號(2002), 「論『笠』詩刊創辦陳千武的詩」, 『中國現代文學』第24號(2003), 「包容的美學: 論九〇年代初期陳千武的詩」, 『中國現代文學』第27號(2003)가 있다.

이 소설들은 그가 일본 군인으로 참전하여 일본의 군국주의를 정면으로 경험하면서도 전쟁터에서 마주친 타자들을 통해 일본군과 이질성을 유지하고자 분투하는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임무라는 명분으로 그 폭력에 가담하는 양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타이완 출신 일본군들의 수기 및 작품들 중에서도 제3자의 눈길을 끈다. 이것은 ‘폐전’이라는 상실감이 전후 국민 재통합에 방해가 되고 ‘신일본’ 건설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종전’으로 고쳐 명명하고 ‘우리 모두 전쟁 피해자’라는 국가적 담론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된 일본 작가들의 전쟁 체험담과 다르다. 또한 해방된 조국 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일본군으로서 참전했던 행보를 해명하고자 소설이라는 허구적 형식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재편되는 냉전 질서 속에서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 다소 성급하게 식민 유산을 청산하고 한일회담까지 진행하는 와중에 양산된 1960년대 상품화된 한국의 전쟁문학과도 다르다.

본고는 우선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에 수록된 천첸우의 수필을 통해, 식민 통치하에서 그가 겪은 성장과정에서 식민자가 점령지의 문화 발전을 주도하기는 하지만 피식민자 역시 각종 형태로 대화하고 저항·창조하기도 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活著回來: 日治時期臺灣特別志願兵的回憶』에 수록된 소설의 작중 화자인 ‘林兵長’, ‘林逸平’ 및 ‘나’라는 인물이 바라보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식민지 출신으로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원동기를 결코 회피하지도 않으며 동의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진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원망과 한탄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손쉽게 전쟁 피해자로 수렴되지 않도록 자신의 전쟁 경험을 어떻게 형상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타이완에서 오늘날까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 경험의 차이에 따라 극명한 관점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식민 교육의 수용과 愚民化 밀어내기

일본 식민 통치를 경험한 타이완인들은 일본이 시행한 정책을 통해 ‘근대적 시민의식’이나 ‘법치의식’을 수용한 것이지 수동적으로 ‘노예화’된 것이 아님을 해명하고자 한다.⁵⁾ 반면 일제강점기를 ‘식민지근대화론’에 치우쳐 해석하는 시각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시절을 미화하여 편파적인 역사관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반박한다.⁶⁾ 어떤 관점이 신빙성이 높은가 하는 것은 실증적 사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에 근거하여 대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료를 대면하더라도 엮어내는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과편적인 자료를 함께 수합해 놓고 볼 때 실제로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동시성의 비동시성’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타이완 거주 일본 아동과 타이완 아동을 구분해서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小學校’와 ‘公學校’ 체제는 문관 총독기에 접어들어 새롭게 개편된 체제이다. 1903~1911년 사이 대만총독부는 타이완인의 교육수준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우민화정책을 실시했는데, 자신들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대만인 엘리트층을 만족시키는 것이 통치를 안정화하는데 중요하며,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하다못해 어느 정도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물이 ‘公學校’ 체제였다.⁷⁾

5) 何義麟, 「戰後臺灣知識分子的日本觀」, 『跨越國境線: 近代臺灣去殖民化之歷程』(臺北: 稻鄉出版社, 2007), 219-257쪽.

6) 潘朝陽, 「肉麻歌頌日本帝國植民主義的臺灣史家周婉窈」, 孫水波, 「悲情與自由包藏不住政治意圖: 評周婉窈的‘日據’與‘日治論」, 『海峽評論』 258期(2012.06), 63-70쪽.

7) 陳培豐, 『‘同化’의 同床異夢: 日本統治下臺灣의 國語教育史再考』(三元社, 2001), 66-98, 142-191쪽. 타이완에서 초·중등학교, 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 전문

공학교에 다니는 피식민인에 속하는 토착 아이들은 항상 열등감이 있었다. 일본어를 못해 타이완어를 사용하면 벌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 열 살짜리 아이가 ‘차별’을 모른다고? 소학교의 시설이나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교복은 물론 대우 모두 차이가 났었다. 공학교의 모든 것은 비교적 조악하고 남루했다.⁸⁾

1931년 공학교[역주: 南投縣 名間鄉 皮子寮公學校] 3년 과정을 졸업한 뒤 일본어 말하기시험을 통과하여 일본인 아동이 다니는 소학교[역주: 南投尋常高等小學校]로 전학 갔다. ... 한 반에 30여 명의 학생이 있었고 타이완인 아이는 2-3명이 함께 공부했는데 種族 차별이 없었다. 공학교와 똑같이 남녀 공학이었지만 공학교와 소학교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 소학교의 일본 아동은 일본 각지에서 모집되어 왔는데 사고방식이 매우 개방적이었고 행동도 자유분방하여 ‘남녀칠세부동식’같은 구식 예교도 없었다.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항상 남녀가 함께 웃고 함께 말했다. ... 공학교에서 母語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과 달리 오히려 말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인 선생님과 급우들이 나에게 타이완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구조의 다름에 대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일본 통치자 입장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의 인생을 원망해본 적이 결코 없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학력과 체력 면에서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나는 열심히 실력을 닦으면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이라 믿었다.⁹⁾

타이완에서 ‘公學校’ 체제를 통해 ‘일본인 同化 교육(일본어 교육)을 실시할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피식민인을 통제하는 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의견이 분분했다. 191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던 구미 국가들은 피식민지 교육정책에 영국령 인도의 사례를 참고·연구했는데, ‘동화교육’은 ‘어설피게 교육된 현지인’을 창출하고 반체제적 민족의식으로 각성한 ‘위험한 교란의 종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 영국이 인도에서 실시한 ‘영어교육’이 토착인들로 하여금 ‘권리와 자유’라는 영국의

학교, 타이베이 제국대학(1928년 설립)과 같이 근대적 학제가 갖추어진 것은 1922년 ‘新臺灣教育令’이 실시된 이후부터이다.

- 8) 『我的文學緣』(『文學臺灣』 6期(1993.4.)),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臺中市文化局編印, 2007), 31-32쪽.
- 9) 『讀小學校』(『中縣文藝』 6期(1992.12.)), 앞의 책, 12-13쪽.
- 10) 미즈타니 사토시(水谷智), 「식민지 인도의 ‘영어교육’과 ‘비교정치’: 도쿄 미노루(東郷實)의 식민지 교육론과 제국횡단적 기원」, 『식민지라는 물음』(소명출판, 2014), 393-448쪽.

사상을 함양하게 만들고 인도의 정치·경제적 억압 현상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면 결국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이완에서 ‘일본인 동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들 역시 이러한 식민지 동화 교육의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경계하고자 했다.

하지만 상기 인용문을 보더라도, 그들의 우려와 달리 ‘공학교’ 교육은 타이완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인과 타이완인의 사회적 신분이 다르며 이에 따라 학력·직업·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각인시키는 공식 루트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¹¹⁾ 천첸우는 초등 과정에 입학하기 전, 어느 정도 학식 있는 가문에서 자란 어머니로부터 河洛語로 한자를 읽는 법을 배웠는데, 공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집에서는 河洛語로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됐다.¹²⁾ 천첸우는 공학교에서의 일본어 전용 교육이 정신적인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강압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타이완인들이 ‘침묵’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반면 공학교 일본어 교사였던 삼촌의 지도 덕분에 일본어를 월등히

11) 타이완총독부는 ‘공학교’ 출신 타이완인들이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이후 타이완 각지에서 하급 기술자로 일하기를 바랐으나, 공학교 졸업생들의 진학 열망은 총독부의 계산과 많이 어긋났다고 한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부터 타이완에서는 ‘황민화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이 ‘공학교’를 통해 전민 신체동원과 健民운동 등이 전개되었다.(許佩賢, 『殖民地臺灣近代教育的鏡像: 1930年代臺灣的教育與社會』(衛城出版, 2015), 77-99, 259-278쪽.)

12) 천첸우의 모친은 南投 南陔詩社의 시인 吳維岳의 여동생으로, ‘漢塾’은 다녀 보지 못했지만 한자를 천첸우 부친보다 많이 알았으며, 「삼국지」, 「서유기」, 「홍루몽」 이야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천첸우의 부친은 南投縣 名間鄉의 농업 기술자[농업양잠 전문과 졸업]로 당시 공무원이었다. 천첸우의 삼촌은 당시 타이완에 개설된 사범학교 제1기 졸업생으로 공학교 1학년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는데, 천첸우는 삼촌을 통해 상당히 표준적인 일본어 발음을 익힐 수 있었고 덕분에 다른 아동들과 달리 ‘소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타이완 아동이 소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공식 시험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천첸우는 소학교 교장과 단독 면담을 거친 뒤 뛰어난 일본어 실력을 인정받아 입학하게 되었다. 천첸우가 소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고 일본어가 너무 유창하여 같은 타이완 학생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종종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말대로 자신은 일종의 ‘예외 사항’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我的國文老師」(『明道文藝』 178期, 1991.1), 「殖民地的孩子」(『自立晚報』 1985.3.16),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14-16, 38-39쪽.)

잘했던 천철헌우는 ‘소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일종의 예외 사항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때 식민지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일본인과 이러한 제도적 차별 없이 자란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소학교의 일본인 친구들은 천철헌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편을 들어주고,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 선생님은 공학교의 일본인 선생님과 달리 친절하고 열정적이며 ‘청나라 노예(淸國奴)’ 또는 ‘빠가야로’라는 욕도 할 줄 몰랐던 것이다. 소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멸시로 인한 정신적 우울을 전혀 느껴보지 못할 정도였다. 식민지 사회에서 타이완인들은 늘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을 대할 때 적대적이지 않으면 아첨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인은 일본인을 ‘네 발 짐승(四脚仔)’ 또는 ‘개새끼(狗仔)’라고 욕하고, 일본인은 그런 타이완인을 ‘청나라 노예(淸國奴)’ ‘빠가야로’라고 욕했다. ‘이러한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같은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인민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은 천철헌우의 관심을 문학으로 향하게 만들었다.¹³⁾

공학교 과정 3년을 마치고 소학교 3학년 과정에 편입한 천철헌우는 소학교를 마칠 때(4년간)까지 일본어로 사고하고 일본식으로 생활했다. 자유로우면서도 규칙을 준수하고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일본인 학생들을 보면서 천철헌우는 타이완인의 생활 습관 및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육환경은 그의 일에 대한 상황 파악 능력과 판단력을 향상시켰다. 1935년 3월 소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臺中一中(5년제)에 입학했다. 臺中一中은 당시 타이완의 명사였던 林獻堂, 辜顯榮 등이 출자하여 타이완인 자제들이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¹⁴⁾ 린셴탕이 개입되어 있는 데

13) 「我的文學緣」(『文學臺灣』6期(1993.4.)),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33쪽.

14) 2017년에 교명이 바뀐 현재의 ‘臺中市立臺中第一高級中學學校’가 바로 이 학교이다. 1915년부터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2개 반 각 50명(총100명)에서 천철헌우가 입학하던 해부터 3개 반(총15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현재 타이완 학계에서 식민 통치기 엘리트들이 받았던 교육을 중심으로 상세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지만, ‘一中’과 ‘二中’이라는 중등과정 체제에 대

다 臺中二中과 달리 일본인 학생도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전 교생 150명 중 10명을 넘지 않았지만) 항상 타이완총독부의 감시를 받았다. 교장과 교사 모두 일본인이었고 정규수업 외에 육상·유도·검도·악대 연주와 같은 과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천첸우는 이 시기에 臺中 州立圖書館을 들락거리며 일본·중국의 문학은 물론 영국·미국·소련·유럽 등의 명저를 편식 없이 탐독하면서도 교내 단 1명뿐인 타이완 교사가 진행하는 한문 수업을 빠짐없이 챙겨 들으며 지속적으로 ‘한자’·‘한문’에 대한 끈을 유지했다.

공식적으로 타이완에서 ‘황민화정책’이 실시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지만, 타이완인들이 식민자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통치체제와 공모했던 것은 192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처음에 일본의 점령에 저항했던 紳士와 富豪 등 舊 타이완 사회지도층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 및 재산, 마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차차 총독부의 정책적 유인에 순응하며 식민행정의 말단에서 보조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식민 통치에 협력했다. 그들의 자식들은 일본식 근대교육 및 일본 유학을 통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민 정권 하의 주요 지도층으로 부상했고, 일본 점령 초기부터 식민정권에 협력하여 신분상승을 시도한 자들의 자손과 경쟁했다. 일본식 근대교육을 받은 자제 중 민족운동·사회운동에 투신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력한 협력자가 됐던 것이다.¹⁵⁾ 태평양전쟁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당시 사망한 라이허(賴和, 1894~1943)가 식민자인 일본을 통해 근대화를 겪으면서 타

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천첸우와 예스타오의 경우를 비교해 보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5) 손준식, 「황민화운동 이전(1895-1936) 타이완의 식민통치 협력자」, 『역사문화연구』 제31집(2008.10), 137-168쪽. 1920년대 타이완 민족운동의 지도자인 린셴탕 역시 아들들을 일본에 유학시킨 바 있으며, 린셴탕과 함께 臺中一中을 세운 구셴룽이 바로 점령 초기 일본군의 타이완 점령에 협력하여 신분이 급상승한 대표적 인물이다. 구셴룽은 鹿巷 출신의 무명소졸이었지만 항일의용군 진압과 민심 수습, 군량 조달 등 일본군의 점령에 협력하여 타이완인 최초로 훈6등 표창을 받았다. 이후 타이완 최고의 어용신사로 출세했다.

이완의 낡은 풍습과 미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는 긍정적이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근대화에 비판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라이허는 일본이 타이완에서 실시한 식민지 교육기체에 ‘지식/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목도했고, 이를 통해 찍어낸 상품 같은 ‘피식민자 엘리트’들이 점차 타이완 노동계급의 현실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 이 자체가 바로 식민자들이 가져온 진보성에 은폐되어 있는 ‘폭력’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몽운동의 진보성만 바라보는 행위가 식민자에 공모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¹⁶⁾

그런 점에서 ‘제국의 언어’를 잘 구사했던 천철투 역시 이러한 지식/권력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이중 언어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감수성 자체가 이러한 대세에 등을 돌리고 일종의 내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황민화정책’이 실시되었고 1940년 臺中 학생들에게 일본식 창씨개명(改姓名)이 권장되었다. 소학교와 달리 타이완인을 교육시키는 臺中이었지만 천철투는 이곳에서 다시 공학교 시절에 느꼈던 피식민자의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臺中の 일본인 교장은 특하면 학생들에게 ‘칭나라 노예’라고 욕하다가도 중일전쟁이 터지자마자 ‘타이완 本島人は 일본의 臣民으로서 支那人이 아니니까 천황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다. 천철투는 자신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에는 말문이 막히면서 우민화된 타이완인이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장의 사고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학내에서 창씨개명에 반항하다가 ‘교내 감금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¹⁷⁾ 두 사회와 문화에 대한 피식민 청년의 관찰과 고민은 결국 창작으로 이어져, 1939년 8월 4일 『臺灣新民報』에 ‘陳千武’라는 필명으로 첫 번째 시(「夏

16) 陳健忠, 『日據時期臺灣作家論: 現代性·本土性·殖民性』(臺北: 五南圖書出版, 2004), 40-61쪽. 라이허의 이러한 생각은 「歸鄉」(『南音』 1932.1.1.)이라는 작품에 잘 반영되어 있다.

17) 「淘氣少年時」,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23-30쪽. 「卡減校長」은 이때 臺中一中的 교장을 모델로 개명운동 반대 사건을 소설화한 작품이다.(陳千武, 『情虜——陳千武短篇小說集』(南投縣政府文化局, 2002 수록.)

深夜的一刻)를 두고했는데 게재가 되었다. 『臺灣新民報』는 당시 黃得時(1909~1999)가 담당하고 있었고 일본인이 운영하던 『臺灣日日新聞』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臺灣新民報』에 투고했던 것이다. 소학교를 다니면서 일본 아동처럼 성장한 천철투였지만,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이름을 떨치던 타이완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천철투가 가장 감명 받은 타이완 출신 작가로는 張文環(1909~1978)과 楊逵(1906~1985)를 꼽을 수 있다.

장원환은 주지하듯, 일본 東洋大學 유학 시절부터 ‘臺灣藝術研究會’를 결성하여 『福爾摩莎』라는 잡지를 창간했을 뿐 아니라 1934년 「父の顔」(이후 ‘父の要求’로 알려짐)이라는 단편소설을 써서 일본 3대 종합잡지 중 하나인 『中央公論』 문학상을 수상했고, 타이완에 돌아와서는 『臺灣文學』의 주편을 맡으면서 그 유명한 니시카와 미즈루(西川滿)의 『文藝臺灣』에 대적한 이력이 있다. 천철투는 장원환의 향토성 짙은 현실 묘사와 그 속에서 느껴지는 타이완인의 비판적 감성에 매료되었다.¹⁸⁾ 천철투의 회고에만 근거하면 장원환이 일본식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지식인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장원환은 그런 인물은 아니다. 물론 황민화정책이 실시될 무렵, 유평적인 니시카와 미즈루의 文風에 맞서며 ‘개똥 현실주의’ 논쟁(1943년)을 일으킨 했지만,¹⁹⁾ 전향을 공포하지 않으면 아예 발언 기회가 사라지던 시기에 결국 국책 문학을 수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천철투가 1942년 ‘臺灣特別志願兵’에 선발되어 훈련소에서 1개월 신병훈련을 받고 첫 외출 허가를 받았을 때 동기와 함께 장원환을 찾아갔는데, 이때 장원환은 이미 「舍營印象記」(『臺灣時報』 1941.12.1.)를 썼을 때였다. 「舍營印象記」는

18) 「張文環與我」(『笠』 84期, 1978.4),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124쪽.

19) 류수진(柳書琴), 「개똥현실주의와 황민문학: 1940년대 타이완 문단의 정체성 논쟁」, 『타이완의 근대문학』 2(서울: 소명출판, 2013), 196-245쪽 참고. 식민지 제2세대에 속하는 장원환 역시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지만 황민화 시기 문화 개조와 일본 정체성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타이완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식민 근대성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兵)의 『보리와 병정』(1938.8.)²⁰⁾의 타이완판에 속하는 글로, ‘솨當舖’은 宜蘭평원에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민가에서 숙박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장원환이 1941년 11월 14~16일 2박 3일에 걸쳐 타이완의 宜蘭·羅東·蘇澳을 다니며 전시 체제 하의 軍民 협동을 직접 목도하고 작성한 전시 실습 체험기이다. 군인들의 군사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라면 한 번쯤 전장에 나갈 만하다.”는 말로 마무리되는 전형적인 국책 문학의 성격이 강하다.²¹⁾ 하지만 이때 장원환은 천철투가 ‘현역병’으로 곧 전장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천철투 역시 장원환을 ‘비록 일본어로 창작을 했지만 漢人 고유의 기질과 정신을 느끼게 해주는 자아와 자존을 잘 표현했던 타이완 작가’로만 기억하고 있다.

『新聞配達夫』로 도쿄의 『文學評論』상을 받아 등단하게 된 양쿠이 역시 천철투는 천성적으로 반골기질을 가졌으며, 불합리·부도덕·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항상 자신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표출하는 강직한 작가로만 기억하지만,²²⁾ 사실 양쿠이도 황민화시기에 복잡한 내면을 보여준 작가이다. ‘개똥 현실주의’ 논쟁 당시에 장원환과 같은 입장에 서서 니시

20) 조영란,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聖戰을 위한 일그러진 구호: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에 대한 소고」, 『통합인문학연구』 제4호(2012), 1-14쪽 참고. 아쿠타가와 상을 받은 히노 아시헤이가 쓴 이 종군 수기는 1938년~1944년까지 일세를 풍미할 정도였는데 이 작품 덕분에 히노 아시헤이는 당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조선의 ‘황문위문작가단’과 같은 ‘펜 부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천철투가 시를 게재하고 臺中 4학년 때 처음 장원환을 대면할 때도 거론될 정도로 유명했다. 당시 타이완에서 얼마나 이 작품이 유명했는가 하면 장원환이 「○○와 ○○」 제목으로 작품을 쓰는 것은 너무 통속적이라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였다.(『張文環與我』, 123쪽.)

21) 野間信幸, 「張文環의從軍演習體驗」, 『東洋大學中國哲學文學科紀要』 17號(2009), 1-22쪽 참고. 이 글에서 노마 노부유키는 비록 장원환이 ‘대동아작가대회’에 타이완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일본의 정책에 대해 공적인 측면에서 협조하기는 했지만, 실습 체험 중에 만난 아편에 중독된 타이완 민중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편향을 할애하면서 상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때 나약한 자신의 내면을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피식민자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2) 『楊逵의文學與生活』,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127쪽.

카와의 황민화 언설에 대항했지만, 1944년 총독부 情報課에서 위탁 받아 「増産の陰に」(『臺灣文藝』 1944.8)라는 르포르타주를 썼기 때문이다.²³⁾ 이 글에서 장원환과 양쿠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타이완인의 입장에서 시대를 고민하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바라봤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선배 작가들이 황민화 시절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분열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천철투는 그들의 작품과 활동을 통해 타이완인으로서 타이완의 내부를 근심하는 동시에 일본 식민 통치자의 잔혹함과 표리부동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천철투의 시각이 남다른게 보이는 것은, 천철투보다 3살 더 어린 葉石濤(1925~2008)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스타오는 천철투와 똑같이 전면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던 세대였고 공학교-臺南州立第二中 과정을 거쳤다. 또한 臺南二中 3학년 때 일본어 소설 「媽祖祭」(1938년)를 장원환이 주편을 맡고 있는 『臺灣文學』에 투고했다.²⁴⁾ 하지만 천철투와 달리 두 번째 소설을 니시카와 미즈루가 주편을 맡고 있는 『文藝臺灣』에도 투고 했으며 1943년 臺南二中을 졸업한 뒤에는 『文藝臺灣』의 보조 주편으로 입사했다. 한창 ‘개똥 현실주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스타오가 왜 니시카와 미즈루와 같은 입장에서 있었는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마치 일본인처럼 믿어 의심치 않던 일본의 신화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정서적인 연결 지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²⁵⁾

23) 張季琳, 「戰時下の楊逵: 「増産の陰に」をめぐって」, 『臺灣の「大東亞戰爭」: 文學・メディア・文化』(東京大學出版會, 2002), 130-143쪽. 양쿠이가 이런 작품을 쓴 것에 대해 황민화 시기의 ‘강제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장지린은 양쿠이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 성향이 강한 작가임을 감안한다면, 타이완의 탄광 환경을 직접 답사하고 광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 내세우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세력 타도’에 대해 자기 나름의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본다.

24) 당시 가작에 당선되었으나 작품이 게재되지는 않았다. 현재 「媽祖祭」 원고는 유실된 상태.(『臺灣現當代作家研究資料彙編・葉石濤』(國立臺灣文學館, 2011), 61쪽.)

25) 陳建忠, 「從皇國少年到左傾青年: 台灣戰後初期(1945~1949)葉石濤的小說創

상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철투는 이중 언어로 사고하면서 소학교 생활을 거쳐 일본어로 글을 쓸 수 있음에도 차등적 교육과 차별적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밀어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천철투는 자신의 뛰어난 일본어 구사력이 미래의 선택지를 넓혀 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경계선에 서서 사고하는 방식을 터득했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²⁶⁾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후 천철투의 참전 회고가 전쟁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한국·일본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도 자기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근간을 이룬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천철투의 사례를 보면, 일제강점기 교육정책 자체가 타이완 사회에 ‘시민의식’과 ‘법치의식’을 남겨줬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타이완 사회가 통일과 독립 사이에서 첨예하게 갈등하다보니 식민 시기의 ‘遵國法’, ‘盡公益’을 통해 통치에 복종하는 順民 양성교육을²⁷⁾

作與思想轉折』, 『중국현대문학』 제34호(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05), 201-230쪽. 천철투는 예스타오가 당시에 단지 니시카와 같은 유미적인 작품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존 시각과 달리, 현실을 인지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고 본다. 양태근, 『예스타오를 통해 본 강제된 문명으로서의 식민지 대만과 ‘대만문학’』, 『중국현대문학』 제56호(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1), 147-171쪽. 양태근은 예스타오가 선배 작가 吳濁流의 타이완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의 청년기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일본신화, 불패의 일본, 문명의 일본이었다고 본다. 예스타오 스스로 “나의 국가는 타이완이지만 나의 정신적 기탁은 일본이다.”라고 밝혔듯이 말이다.

- 26) 천철투는 臺中一中을 졸업한 뒤에도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잠시 화교회관 등기에 등록된 廈門人 개인이 운영하는 (중국어) 白話文 敎書所'를 다녔는데, 이 수업에서 만난 豐原製麻會社에 다니는 노동자가 일본어도 잘하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자기 회사에 지원해 보겠냐는 말에 노동자로 입사했다가 가장 낮은 직급의 간부인 ‘役付’로 채용됐다.(『我的國文老師』) 천철투는 노동자와 농민 입장에서 식민 통치를 바라봤던 양구이의 영향을 받아 사회 하층민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豐原製麻會社에서 경험한 것을 戰後 중국어로 글을 쓰기 전에 일본어로 소설화한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일본어 소설을 중국어로 바꿔 문학잡지에 게재했는데, 현재 『情虜—陳千武短篇小說集』(南投縣政府文化局, 2002)에 수록되어 있다.
- 27) 陳健忠, 『日據時期臺灣作家論: 現代性·本土性·殖民性』(五南圖書, 2004), 44쪽. 타이완에 있는 일본인에게는 이와 대조적으로 ‘진취적인 기상’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고 한다.

‘법에 근거한 규칙’으로 왜곡해서 기억하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천철투가 선배 작가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면, 그 작가들의 흔들리는 정체성이 정확하게 어떤 노선에 서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에도 민족 작가로 인식되던 이광수가 한창 친일적 행보를 노골화했을 당시, 지방에서 활동하던 ‘청년독서회’에서는 개의치 않고 그가 전향 전에 뿌려둔 씨앗을 스스로의 자양분으로 삼아 항일 정신을 이어간 사례가 있듯이 말이다.²⁸⁾ 천철투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식민자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것이 식민자의 의도대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3. 타이완 출신 일본군: 전쟁 피해자, 폭력 가담자

천철투는 참전 전에 4년 정도 간간히 시를 발표하다가 1942년 4월 1일 정식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臺灣陸軍特別志願兵’에 선발되어 전장에 배치되었다. 제1회 지원병 신청자는 42만6천명에 달했고 정식으로 선발되어 입소한 수는 약 1100여 명이었다. 이렇게만 보면 1937년부터 일본이 실시한 사회풍속 개혁과 일본문화 동화 정책 및 집중적으로 개최된 각종 좌담회·강연회·단기 훈련활동이 타이완인에게 순조롭게 각인된 결과처럼 보인다. 일본의 전통 관념상 원래 武士는 인민의 최고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그러한 군인(무사)이 되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며 천황과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 더할 바 없는 영광이라고, 타이완인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말이다.²⁹⁾

28) 문한별, 「공판기록으로 살펴본 일제강점기 후반 독자들의 자발적 문예운동이 가진 특징과 의의」, 『한국언어문학』 제90집(2014), 357-376쪽 참고.

29) ‘특별지원병’은 17-30세 남성을 중심으로 모집했으며, 처음 실시할 때는 입대 조건이 상당히 엄격했다고 한다. 우선 주지사나 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천첸우는 이후 전쟁 경험에 관한 글을 발표하면서 수없이 질문 받았다고 한다. “어째서 굳이 ‘지원’하여 병사가 되었는가?” 말이다. 천첸우는 保正(지금의 이장)이 집에 찾아와 마을회의에 꼭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서서 병무과 인사 담당자와 1 대 1 면접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자기 차례가 되자 “이것은 너의 ‘특별지원병’ 지원서이다. 엄지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부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군국주의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온 사회가 미친 듯 보국하자는 구호에 휩싸여 있었고, 병역 의무가 없는 타이완인에게까지 ‘특별’히 ‘自願’하여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마당에, 자신이 어떻게 감히 ‘특별’하지 않겠다고 나설 수 있었겠냐고 ‘非국민’이라고 대답하기보다 자신이 일본 국민임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민이 되면 자연스레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데, 타이완인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국민이 되기로 한 이상 (정집) ‘의무’는 져야했다고 말이다.³⁰⁾ 천첸우는 신체검사에서 甲을 받고 합격, 臺北 六張犁 ‘특별지원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뒤 1943년 4월 臺南 第4部隊 2등병으로 배치를 받았다가 9월 臺灣 步兵第2聯隊(야전부대) 소속 1등병으로 南洋을 향해 출정했다. 그동안 軍夫·軍屬 신분으로 중국 전장에 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실제 전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과 거리가 먼 동남아시아 전장으로 배치되었다. 1943년 10월 16일 싱가포르 조호르에 도착했다가 12월 15일 인도네시아에 참전, 17일 이후 당시 포르투갈령 동티모르에 주둔하며 오스

했고, 나이·키·신체 조건에 부합해야 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력을 증명한 뒤 신체검사가 통과되면 구두시험 및 학과시험을 최종 통과해야지만 정식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후 卅 新聞에 ‘영예로운 지원병 명단’이 게재되고 시끌벅적한 환송식을 받으며 출정했다고 한다. (『我的小說創作與戰爭體驗』,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74쪽.)

- 30) ‘지원병’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었는가 하면, 경찰이 집집마다 다니며 부모에게 아들의 도장을 만들라고 강요하여 지원병 신청서에 찍었을 뿐 아니라 도쿄에서 유학중인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로 하여금 ‘어서 군대에 자원하라’는 편지까지 쓰게 했다고 한다. (陳柏棕, 「日治時期台灣日本兵任務及其境遇之探討: 以分派至中國南洋戰區為例」, 『新北大史學』 第四期(2006), 38쪽.)

트레일리아 북부지구 방위작전에 투입됐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을 전달받은 뒤, 영국군의 지휘를 받아 인도네시아 독립 지지 작전에 참가, 1946년 2월 팔 부상으로 신경이 절단되어 인도네시아 반둥에 있는 제5육군병원에서 요양을 했다. 같은 해 4월 타이완병사를 대표하여 駐인도네시아 중국대사관에 귀향을 요구했고, 7월 14일 싱가포르를 거쳐 20일 基隆에 도착, 한밤중에야 고향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³¹⁾

귀국 후 천철투는 林務局 八仙山林場에서 별목공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2·28사건과 양쿠이 선생이 「和平宣言」으로 국민당 정부에 의해 체포되는 일을 목도했다. 1950년 8월부터 국민당 정부는 신문·잡지에서 일본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1956년 5월부터는 초·중등학교에서 臺語 사용을 금지시켰다. 1950년~60년대 사이 戰前 일본어 세대가 운영하던 일본어 잡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타이완에서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표준 중국어’를 새롭게 익혀야 했다. 간간이 일본어로 시와 소설을 발표하던 천철투가 중국어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로 접어들어서야 가능했다.

태평양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총15편의 단편소설을 수록한 첫 단행본 『獵女犯: 日治時期臺灣特別志願兵的回憶』(1984)과 재출간된 『活著回來: 日治時期臺灣特別志願兵的回憶』(1999)의 구성을 보면, ‘특별지원병’이 출정하는 순간부터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읽으면 어느 타이완 출신 일본군에게 시대 순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에는 좋지만, 천철투가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경험을 반추하면서 어떤 과거를 마주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두 단행본 모두 「旗語」(『臺灣日報副刊』 1981.1.27), 「輸送船」(『臺灣文藝』 第17期 1967.10), 「死的豫測」(『臺灣日報副刊』 1981.2.18), 「戰地新兵」(『文學界』 4期 1982.10)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31) 천철투의 동티모르 체류와 이에 관한 상세한 문답은 後藤乾一, 「元臺灣特別志願兵戰時的東ティモール體驗」, 『アジア太平洋討研』 7호(2005.5), 135-161쪽 참고.

에 「遺像」(『臺灣文藝』第50期, 1976.10)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별로 발표한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輸送船」이 가장 먼저, 그리고 잇달아 발표하지 않고 8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遺像」을 발표한 뒤 거꾸로 앞쪽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³²⁾ 본 장에서는 천철투가 타이완 출신 일본군의 죽음을 환기시키는 방식, 일본군 내부에 있으면서도 타자를 거울삼아 자신을 외부에 위치시키는 양상들 그럼에도 군국주의의 외부란 있을 수 없는 극한 상황 하에서 폭력에 가담한 과거를 대면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한 여러 나라의 작품들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천철투 작품과 대조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식민지 교육을 받은 적 있거나 일정한 고등교육을 받은 적 있고 1940년대 강제로 징집되었으며 전후에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소설 형태로 다룬 작가, 1941년 이후 일본이 점령한 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와 같이 제3국 중에서도 남방 지역에서 전쟁을 겪었던 한일 작가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다수 참고할 것이다.

戰後 1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欽이 南洋에서 제대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欽은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녀가 그를 몇 차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의 가족들이 그랬다. “그 아이는 남부로 갔소.” 欽은 마치 이전의 欽이 아닌 것처럼, 欽은 전쟁 종식과 함께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일까? ... 그러나 그녀가 막 남부로 가려고 할 때 欽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2·28사건이 발발하자 欽이 치안부 보병에게 오인 받아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欽의 죽음은 억울하다. 결

32) 천철투의 참전 회고 소설에 대해서, 1) 인도주의와 인류애적 관점, 2) 타이완의 대표적인 전쟁 소설들과 비교한 것, 3) 천철투의 詩作과 비교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혹 남양 원주민에 관한 기록, 중화민족의 강인한 특성을 보여주는 시각으로 접근한 바 있다.(陳采玉, 「『獵女犯』版本與日譯問題」, 『科學與人文研究』第2卷第2期(2013), 27-40쪽). 단행본에 수록된 총15편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구성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고찰한 것으로는 吳慧停, 『記實與虛構: 陳千武自傳性小說『臺灣特別志願兵的回憶』系列作品研究』(清華大學碩士論文, 1993), 李展平, 『太平洋戰爭書寫: 陳千武『活著回來』, 李喬『孤燈』, 東方白『浪淘沙』爲論述場域』(中興大學碩士論文, 2009)이 있다.

코 그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³³⁾

단행본으로 수합할 때 두 번째로 창작한 「遺像」을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다른 소설들과 다른 작중화자 ‘欽’이 갑자기 등장하며, 위와 같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자를 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첸우는 자신이 겪은 죽음의 공포와 그 속에서 죽은 전우를 남겨 두고 살아 돌아온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대면하고자 했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정신적 상흔은 기억의 한편으로 집어넣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월을 보내며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다른 기쁨을 찾는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과거를 외면하는 것일 뿐 애도한다고 할 수 없다.³⁴⁾ 欽은 전쟁에서 구사일생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인식됐고, 결국 치안부 보병에게 죽음을 당한다. 이 억울한 죽음은 그동안 묻혀있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죽음들을 상기시켰다. 그 또한 억울한 죽음이었다. 출정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표어가 적힌 수건을 흔들며 요란하게 환송하더니,³⁵⁾ 모두가 죽고 자신만 살아 돌아왔지만 출정했던 자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는 이 아무도 없었다.

중국어를 익힌 뒤 처음 발표한 소설인 「輸送船」에는 출정하는 뱃머리에 서서 틈만 나면 미친 듯이 “천황폐하 만세”, “전진! 전진! 적을 향해 싸라, 타, 타, 타, 타타타타. 만세! 만세!”를 3일 동안 외치던 가고시마 출신 일본인 新兵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고요한 바다 위의 거대한 수송선에서 타이완 출신 일본군인 ‘나, 린이핑(林逸平)’은 아예 그 신병처럼 미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독백을 한다. 그가 미칠 수 없었

33) 「遺像」, 『活著回來: 日治時期, 臺灣特別志願兵的回憶』(晨星出版社, 1999), 331쪽.(이후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34)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제58권4호(2012), 783-807쪽 참고. 데리다는 애도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추억을 끝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도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애도를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본다.

35)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旗語」이다.

던 것은 권리는 없고 노역의 의무만 주어진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원병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비국민이 되면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권리 자체가 애초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⁶⁾

남양에다 물어 둔 / 나의 죽음, 나는 가지고 돌아오는 걸 잊었다 / 야자나무가 무성한 섬 /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바다기슭 / 해상에는 토착민들이 짓는 카누 ... / 나는 토착민들의 의심을 빠져나와 / 즐비한 야자나무 사이를 꿰뚫어 / 울창한 밀림 속을 헤쳐 들어가 / 마침내 나의 죽음을 밀림 한구석에 숨겼다 /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옮겨다니며 싸우고 / 적기의 15mm 산탄을 뒤집어쓰고 / 적군 기총소사의 목표가 되고 / 강한 적의 동정에 겁을 먹었지만 / 나는 역시 죽지 않았다 / 나의 죽음은 전에 밀림 한구석에 숨겨두었기 때문에 / 줄곧 정의롭지 못한 일본군이 항복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 나는 조국에 돌아오게 되고 / 나는 비로소 나의 죽음을 / 생각해 냈다 /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고 / 나는 아무래도 언젠가, 반드시 전서구처럼 / 저 남쪽의 기별을 가지고 돌아오고 싶은 것이다³⁷⁾

첫 소설인 「輸送船」에 序詩 형태로 실린 「信鳩」라는 시인데, 통상 공론화되지 못하고 추도 받지 못한 참전자들을 위로하고자 전우에 대한 추억을 상기시키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³⁸⁾ 전쟁소설에서 눈을 뜨고 숨을 확인해야지만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고난에 대해 장황하게 나열하는 장면이 많은 것도 전장의 전우가 이런 극한을 겪으며

36) 「輸送船」, 33쪽.

37) 「輸送船」, 31-32쪽. (번역은 김상호 역, 『파파야 꽃이 피었다』, 72-73쪽 참고.) 이 시는 원래 『新象詩刊』 第5期(1964.7.25)에 발표된 시이다. 국민정부 하에서 별목공을 관리하는 그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자, 현실에 불만을 가진 자가 있는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를 거부하자 ‘주의 인물’로 찍혀 승진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겪은 뒤 천첸우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초창기에는 비유적인 시를 애용했다고 한다.(『我的小說創作與戰爭體驗』,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77쪽.)

38) 이 시의 ‘죽음’에 대해서, 강제된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무가치함을 부정하고 전후 새로운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기 위한 것(趙天儀, 「論詩人桓夫及其作品」), 일본군대가 결사대·특공대처럼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표현한 것(李魁賢, 「論詩人桓夫的詩」), 한 시대의 죽음에 대한 의식이 전후 그의 생에 대한 의지를 지탱해주는 것(陳明臺, 「詩析論桓夫的詩」)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松永正義, 陳明台 譯, 「戰爭的記憶: 閱讀陳千武」, 『新地文學』 夏季號(2009), 265쪽 재인용.)

비참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효과적으로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전후 일본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전쟁 경험을 ‘무고한 귀환자의 체험담’이라는 틀 속에서 수합한 것도, 전쟁 희생자로서의 수난담을 통해 국민총피해론을 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본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⁴⁰⁾ 국책이라는 미명하에 한때 군국주의로 향했던 책임은 모두 일부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지 평범한 일본인들 역시 모두 전쟁의 피해자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마지막까지 죽음을 가져오지 못하고 현재까지 전쟁터에 남겨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974년 12월 아미족 출신의 ‘高砂義勇軍’ 사병 李光輝(일본명 中村輝夫)가 인도네시아 모로타이 섬의 원시 산림에서 전쟁이 끝난 지도 모른 채 30년 만에 발견됐다는 사건과 연결짓거나 구사일생 돌아왔지만 오랜 항전에서 승리한 것을 통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국민정부 시기에는 일본 군으로서 그들의 반대편에 있었기에 반드시 부정되어야 하는 일종의 금기된 역사였다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타이완 출신 일본군이 겪었던 전쟁과 죽음은 「遺像」에서 밝혔듯이 억울하면서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참전하지 않는 것조차 자기 손에서 결정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타이완인들이 일본군인으로 참전했던 경험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으로만 과거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천첸우는 소설을 통해 과거의 참전 경험을 결코 이런 방식으로 대면하지 않는다. 「遺像」에서 주인공 欽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듯이, 타이완인들 역시 아무리 그 시절을 기억하고 소환하더라도 그 시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코 휴머니즘적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군 내부의 식민지 출신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고(「霧」, 『臺灣文藝』 第51期), 식민지 출신 병사가 상급자의 각종 기이한 학대를 감당하며 일본군의 수발을

39) 松永正義, 陳明台 譯, 「戰爭的記憶: 閱讀陳千武」, 『新地文學』 夏季號(2009), 268쪽.

40) 하타노 스미오, 오일환 역, 「전후처리 문제의 종언: 受忍論에 따른 국가보상 회피」, 『전후 일본의 역사문제』(논형, 2016), 147-162쪽.

들어야 했음(「戰地新兵」)을 다룬 작품도 있다. 하지만 천철투 소설의 작중화자(나, 林逸平, 林兵長)의 시야가 오직 군대 내부로만 폐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6년에 발표한 「獵女犯」(『臺灣文藝』 第52, 53期, 1976.7, 10)은 첫 번째 단행본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작품은 다음해 제8회 吳濁流文學獎을 수상했다. 태평양전쟁을 경험했던 일본군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는 ‘일본군성노예(위안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천철투 역시 첫 소설에서부터 일본군들이 ‘P(ピー)’라고 부르는 여자들을 보고 “저렇게 유약한 여자들을 왜 전쟁터로 데려가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지며 「旗語」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작품에서 戰時 강간과 병사들의性に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獵女犯」이 천철투 참전 소설의 대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성노예’를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로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접근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배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인으로서 일본군에 배속되었던 작가들은 군국주의 담론에서 젠더 아이덴티티와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비판하기 위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너무 손쉽게 개인적인 경험인 ‘연애’와 섞어버리거나 표면적인 묘사에 그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⁴¹⁾

“? ... ” “난 너를 속이는 게 아냐, 나도 福老人이거든.” 그 여자는 갑자기 미친 듯, 하지만 조심스럽게 낮은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냐, 아냐, 당신은 일본놈이야, 일본놈이라고.” (중략) “만약, 만약에 당신이 정말 福老人이라면, 어째서 그들의 군인이 된 거죠?”

“타이완이 어떤 곳이든 간에, 당신은 어째서 그들을 따라 군인이 된 거

41) 최은주, 「리상란(李香欄)과 이민족간 국제연애, 식민주의적 욕망: 여배우의 페르소나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표상」,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9집(2014), 257-276쪽, 손지연, 「전쟁 체험의 (사)소설적 재현과 일본군 ‘위안부’ 표상; 후루야마 고마오의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9집(2015), 369-393쪽, 심정명, 「전후문학과 개별의 윤리: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포로기』와 『다시 민도로 섬』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0권(2017), 135-154쪽.

죠?”

“나는 일본놈이 밉고, 당신도 밉워.” “네가 날 밉워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말할 필요 없어, 나도 내 자신이 밉운 걸 ...” “당신도 당신 자신이 밉다면서 어째서 그들이 하는 나쁜 짓을 그대로 하려는 거죠?”

“군대에서의 규율과 명령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어. 拉卡 부락의 추장도 명령하지 않았나?”

“추장의 명령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어요. 오직 일본놈 같은 야만인만 우리의 행복을 깨트린 거라고요.” 아! 인간성을 상실한 군대가 바로 야만인 집단이구나, 한 무리의 도적떼가 되어 남의 행복을 파괴하기만 하니, 이것이 전쟁인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전쟁의 본질인가?

여자들은 헌병들의 감시 하에서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직 침묵할 뿐이다. 약자는 침묵으로 저항한다.⁴²⁾

이 작품의 화자인 ‘林兵長’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군대’답지 않게 전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임무를 맡고 있다. 현지에서 위안소에 들 여자를 사냥해오면 부대까지 수송해 온다. 이 기이한 임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閩南語’를 사용하는 여자는 ‘林兵長’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시킨다. 설사 젊음을 바쳐 전쟁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공유하더라도 결코 ‘야마토(大和) 민족’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⁴³⁾ 그들의 군대에 소속되어 만행을 저지르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타자로서 말이다. 보통 ‘일본군성노예’를 둘러싸고 모집 과정의 ‘자발/납치·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천첸우의 경우 이것이 중요

42) 「獵女犯」, 94, 95, 97, 103쪽.

43) ‘황민화시기’ 타이완 문학에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체화하여 군입대에 지원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 있다. 해당 작품을 잘 읽어보면,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일본인과 똑같이 일을 잘하더라도 결코 ‘일본인’이 될 수 없기에, 극단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역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논리가 담겨 있다.(왕쉐링(王學玲), 「일제시기 ‘황민담론’의 신본 정체성 전략: 천취취안(陳火泉)의 「길」을 중심으로」, 『타이완의 근대문학』 3(소명출판, 2013), 350-380쪽.) 이러한 황민문학을 보고 거꾸로 일본의 ‘內鮮一體’, ‘內臺一體’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구호에 불과했던 것인지에 대한 연구로는 송승석, 「순혈주의에 대한 패배/도피: 陳火泉의 「道」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42집(2007, 149-166쪽)가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일본군인의 ‘P(피어)’가 되면 그 수난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기 인용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성노예로 취급받는 그녀들의 ‘침묵’을 언어의 몸짓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일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를 ‘性’이 아닌 ‘언어’를 표현하는 존재로 접근하고 그녀가 사용하는 ‘언어’(閩南語)를 통해 온기를 느낄 수 있다는 묘사는 한국의 전후 문학작품에서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賴莎璘’ 이름을 가진 이 여성은 2대에 걸쳐 현지인과 통혼하여 혼혈아였는데도 말이다. 조선 출신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이 조선인 위안부를 보고 죄책감 또는 동정심을 느꼈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다르다.⁴⁴⁾ 그런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나는 왜 이 전쟁터에 있는 것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생각하게 함으로써,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말을 아끼며 명령에만 복종하는 군대 내 부대원을 자기의 견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 분리시킨다.⁴⁵⁾ 그리고 이러한 장치는 지원병 시리즈 소설에서 ‘성노예’를 공유하지 않는 ‘林兵長’이 어떤 인물과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일본군으로 또는 식민지 출신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기점이 된다. 항상 적기의 폭격에 노출되어 있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해를

44) 이가형의 『분노의 강』(1993)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조영일, 『학병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2015), 219-251쪽 참고.) 이가형은 한운사나 이병구에 비해 한국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가이지만, 식민지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직접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버마 전선이라는 제3국에서의 참전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특정한 것이다.

45) 倉本知明은 일본작가 다무라 다이지로의 경우 당시 일본군들이 서식밀도가 높아지면 미친 듯 집단행동을 보이는 메뚜기처럼 변하여 ‘일본군성노예’를 통해 병사의 결속과 질서, 연대를 유지했음을 고발하고자 『蝗』을 창작했다고 본다. 지나친 性 묘사를 통해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의 신체에 어떻게 기생하면서 군대를 유지했는지 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천철휘 소설 속의 ‘林兵長’은 ‘금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본군대와 거리를 유지했다고 본다.(倉本知明, 「戰場におけるセクシャリティと身體: 田村泰次郎『蝗』と陳千武『獵女犯』の比較を中心に」, 『生存學: 生きて在るを學ぶ』(2011), 168-181쪽.)

보고서야 또 하루를 살았다고 안도하는 생활을 하며 보급로가 차단되어
현지에서 자력으로 부대를 유지해야 하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군인이 이
렇게 접촉하는 상대에 따라 자신의 변화하는 위치를 인지했다는 그 자
체가 여타 전쟁소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素珊공주가 林兵長에게 다가오자 林兵長은 원주민 여인의 기이한 체취를
맡을 수 있었는데 이 체취는 오히려 그의 정신이 맑아지도록 자극했다. 林
兵長은 정말이지 어떻게 그녀를 대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당신은 ... , 나를 ‘좋아하지’ 않나요?”

素珊공주는 林兵長이 당혹해하는 표정을 보고서 갑자기 ‘강간’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말로 바꿔 말했다.

“장난치지 말아요. 당연히 당신을 좋아하죠. 어서 가요, 부대에서 배식을
시작하니 ... ”

林兵長은 아무렇지 않게 어린 소녀를 대하는 듯한 태도로 素珊공주의 팔
을 붙잡고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타구치(田口)
가 아냐, 나는 타구치 취사병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⁴⁷⁾

“대인, 그들이 다시 도망갈까 염려되지 않으세요?” 통역을 하는 馬利諾가
긴장하며 물었다.

“감히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총으로 쏘 죽일 것이다 — ”

林兵長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묶여있는 원주민(土人)을 겨냥하
며 손으로 쏘는 시늉을 했다. 원주민들은 총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긴장하기 시작했다. 비서인 耶洛達조차 안색이 변했다.

林兵長은 권총을 허리에 다시 차고 말했다. “손을 묶은 밧줄을 풀어라.”

(중략)

“기왕에 처벌해야 한다면 너는 어떤 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林兵長이 비서 耶洛達에게 반문했다. “체벌이 가장 좋죠. 맞으면 그 고통
이 마음속까지 느껴지니 감히 다시는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네

46) 실제 천첸우가 소속된 부대는 수송 단계에서부터 계속 폭격을 당해서 보급
로가 차단되어 현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다
는 대목이 모든 작품에서 등장한다. 당시 일본군의 이러한 생활은 일본작가
의 작품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오랜 군대 생활에 지쳐 정말이지 아무 생
각 없이 있다가 깨우기 전까지 자고, 바보처럼 있다가 명령하면 시키는 대
로 그냥 그대로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후루야마 코마오, 『메미의 추억』,
『슬픈집착, 성애』(소담출판사, 2005), 299쪽.)

47) 『求生的慾望』, 182쪽.

가 때려라 — ”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서 제가 때리면 그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대인이 때려서야 합니다. 대인은 외부에서 온 神이니, 마음이 아플 정도로 때리면 그들도 온몸으로 신의 위력을 느낄 것입니다.”

(중략)

비서 耶洛達의 생각이 맞았다. 처벌당한 원주민들은 이때부터 다시는 감히 일에 빠지지 않았다. 어쩌면 일찍이 포르투갈 총독도 이러한 방식으로 식민지를 성공적으로 통치했겠지?⁴⁸⁾

「求生的慾望」(『文學界』第9期, 1984.2)은 참전 회고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표되었고 보급로가 차단되어 현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서 양식을 해결해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1985년 洪醒夫 소설상을 수상했다. 첫 번째 인용문은 아직 어린 원주민 소녀 素珊공주가 린 병장에게 일본인 병사 타구치의 만행 즉, 밤에 원주민 소녀들을 겁탈 한다는 사실을 고발한 적 있는데, 맑고 순수한 素珊공주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언젠가부터 그 경멸하는 타구치처럼 변해가는 것을 감지하는 대목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일본인이든 식민지 출신이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享福을 여자를 품는 것에서 찾았다. 린 병장은 출정할 때부터 강제로 끌려온 여성의 몸을 장악하는 것이 享福이라고 생각하는 동료들을 경멸해왔다.⁴⁹⁾ 그래서 그는 素珊공주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그들과 닮아가자 그들과 달라야만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자각에도 불구하고 린 병장은 결국 군국주의의 폭력을 시행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두 번째 인용문은 피지배자로서 ‘빠가야로’ 소리를 듣던 식민지 출신 병사가 원주민들 앞에서는 지배자로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채찍을 휘두르는 물리적인 폭력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전쟁이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의 맹주인 일본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침략자의 문명적 합리화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48) 「求生的慾望」, 190-192쪽.

49) 「輸送船」, 40쪽, 「迷忙의季節」(『文學界』第8期, 1982.11), 131-132쪽.

한국과 일본에도 전쟁터에서 일본군으로서 제3국의 원주민과 대면했던 경험에 대해 다룬 작품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을 비롯한 남방 지역은 당시 한국과 일본에 있어 생태 문화적으로 낯선 이국임과 동시에 문명/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체계 속에서 인식되었다. 특히 타이완에서는 분리정착을 실시하며 이러한 관점 하에 토착 원주민에 대한 현지조사·연구를 행하면서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異文化를 가진 원주민을 대면했을 때, 일본인 병사는 천황의 항복 선언 후 그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적’으로 현현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타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點景처럼 인지한다. 이에 반해 조선 출신 일본군 병사는 일본인과 달리 필리핀 여성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이성적이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포착하지만 이러한 시선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과 내가 같은 식민지 출신이었다는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⁵⁰⁾ 이에 근거하면 ‘타인’이라는 것은 나의 행동이 일방적일 경우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체의 것은 내가 관심·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존재하며 타인이 나의 행동에 응답하거나 적어도 응답할 수 있을 때 서로 자기와 동류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천첸우 작품의 경우, 전쟁터에서 만난 다양한 타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기 가치를 의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일 전쟁소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⁵¹⁾ 식민지 출신 주제에 먼저 승진했다고 戰場에 오래 있었던 일본인 병사에게 구타당한 적도 있는 林兵長이 현지 원주민들 앞에서는 지배자로서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던 ‘폭력’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한다. 별다른 욕심 없이 자연과 어울려 사는 순박한 원주민들

50) 장지영, 「전후 한일문학자의 전쟁소설 비교연구: 제3국에서 체험한 아시아 태평양전쟁」, 『일어일문학연구』 제89집(2014), 295-297, 291-294쪽. 심정명, 「전후문학과 개별의 윤리: 오오카 쇼헤이 『포로기』와 『다시 민도로 섬으로』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0권(2017), 135-154쪽 참고. 한국에서는 이병구의 작품에서, 일본은 오오카 쇼헤이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 일본학자 松永正義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다양한 주변인과 사물에 대해 천첸우 작품속의 화자만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본다. (松永正義, 陳明台 譯, 「戰爭的記憶: 閱讀陳千武」, 『新地文學』夏季號(2009), 261쪽.)

의 삶의 방식을 좋아하면서도, 일본군으로 맡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체찍’을 가해서라도 그들의 느슨한 생활방식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수렵 생활에 익숙한 원주민들이 규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문화가 저열하여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林兵長の 시선에서 타이완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선이 겹쳐져 있다.⁵²⁾ 전장의 경험에 대해 말할 때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천철투가 린 병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지배자-일본인, 피지배자-타이완인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전쟁 경험을 소환했다면, 그의 작품은 가해자에 대한 원망을 쏟아 내거나 어찌할 수 없었던 피식민자 신세에 대한 한탄을 반복하거나 이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를 동정하는 방식으로 독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그 (이기적이고 음란하며 잔인한 성격을 띤) 타자성이 자기 내부로 침투해 오는 것에 가위놀림을 당하면서 그 타자성을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강제된 ‘지원’이었지만 어쨌거나 타이완인들은 일본군으로서 전쟁을 수행했다. 설사 자신의 의도나 바람과는 전혀 무관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폭력에 가담한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군으로 전쟁을 수행한 식민지 출신 병사들의 과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식민지라는 출구 없는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52) 타이완 학계에서는 ‘남양’을 통해 타이완 사회를 되돌아보는 방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화민족주의와 같이 ‘동일성’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이질성’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말이다. (詹閱旭, 『華語語系的跨國連結: 臺灣-馬華文學』, 『臺大文史哲學報』 第78期(2013), 45-74쪽.) 실제로 천철투는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이 수집해둔 타이완 원주민들의 母語전설을 구해서 중국어로 번역·소개했으며, 원주민 작가 와리스 뉘간은 천철투와의 인터뷰를 통해 늦었지만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복원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瓦歷斯·諾幹, 『汲取族群文化的養分: 訪詩人陳千武』, 『自由時報』(1991.2.20.) 참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식민지 타이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위와 같은 양의적 정체성은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침투된 것이다. 그러므로 천첸우가 죽음을 남양에 묻어두고 온 것, 「遺像」에서 欽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없는 존재처럼 형상화했던 것은, 타이완의 식민 경험과 일본군으로서의 참전 경험이 단지 피해자와 노예화된 인간이라는 시각으로 명확하게 기록되고 전해질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오늘날 타이완에서 식민시기 타이완의 역사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전 군인들의 후손들 그리고 대륙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 즉, 자신이 전혀 겪어 보지 못한 그리고 겪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타이완인들의 고통스런 양의적 정체성에 편견 없이 다가가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4. 마치며

일본 천황이 라디오에서 항복을 선포하던 날, 일본인 병사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작중화자 ‘林兵長’은 식민 통치의 과대망상이 한순간에 깨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알 수 없는 후련함을 느꼈다. 아직 고향으로 송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철 같은 일본군대의 군법은 느슨해지지 않았지만, ‘군법’과 ‘협박’으로 통제되지 않는 일본군의 일탈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고향을 생각하니 휘파람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잔병이라는 말에 상실감이 들지도 않았고 주둔지 거리를 쏘다니며 閩南語가 튀어나와도 상관없었기 때문이었다.⁵³⁾ 하지만 린 병장의 후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항복한 일본군은

53)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후의 일을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는 「洩憤」(『臺灣日報副刊』 1981.1), 「女軍屬」(『臺灣日報副刊』 1981.2.27), 「異地鄉情」(『臺灣日報副刊』 1981.11.14), 「夜街的誘惑」(『臺灣日報副刊』 1981.11.28), 「蠻橫與容

연합국과의 전쟁에 오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데려온 식민지 출신 병사들에게 조금 전까지 적군이었던 연합국의 지휘 아래서 같은 식민 입장에 있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을 저지하는 전투를 수행하게 했기 때문이다.⁵⁴⁾

20여만 명에 가까운 현실의 타이완 출신 일본군들이 맞이한 종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高砂義勇軍 사병 李光輝처럼 현지에 버려져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경우, 타이완을 환수한 국민정부의 필요에 따라 ‘황군’에서 ‘국군’으로 명명되어 국공내전의 막바지에 파견된 경우, 심지어 그 전쟁터에서 공산군에게 잡힌 뒤 다시 ‘해방군’으로 전장을 헤매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간신히 고향인 타이완에 정착했다 하더라도,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겪어야 했던 어지러운 정체성으로 인한 환멸은 하소연할 새도 없이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침묵하며 삶을 이어가야 했다. 뒤늦게 그들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일본 법원과의 소송과정에서 다시 한 번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⁵⁵⁾

초반에 타이완에 영구 정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국민정부는 대륙 수복이라는 국가적 목표 하에 서로 다른 역사를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을 중화민국 국민으로 균질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오랜 민주화운동 끝에 은폐되어 있던 각종 역사들이 하나씩 복원되고 있지만, 이

認」(『臺灣日報副刊』1982.1), 「默契」(『臺灣時報副刊』1982.4)가 있다. 그래서 천첸우의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소개될 때, 2000년판에는 「異地鄉情」을 제외하고 나중에 창작한 이 작품들이 소개되지 않았다. 2008년에 앞서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이 포함되면서 나머지 작품들도 일본어로 번역·소개되었다.

54) 「默契」, 218-219쪽.

55) 黃自進, 「戰後臺灣主權爭議與中日和平條約」, 『近代史研究所集刊』第54期(2006), 59-104쪽, 林志剛, 「人權的演繹(下): 原臺灣人日本兵戰後求償事件記要及展望」, 『律師通訊』第107期(1994), 25-37쪽 참고. 1945년 이후 미국 특히 GHQ와 일본, 타이완 국민정부는 전쟁의 기점, 이 전쟁의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이 모두 달랐는데, GHQ가 주도하고 일본이 수락하는 방식을 통해 타이완을 비롯한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국민들은 공식적인 전쟁배상에서 누락되게 됐다. 1994년 타이완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주도한 타이완 출신 일본군에 대한 배상소송 과정에서 타이완 사회는 패소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보다 타이완 측 외교 관계자가 보여준 무능함과 무관심에 더 실망했다.

과정에서 또 다른 소외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설사 서로 다른 역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간의 세계사가 근대국가를 구축하면서 균질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를 차등화하면서 강제로 동화시키지 않으면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흘러온 것은 인류가 함께 겪어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陳千武, 『活著回來: 日治時期, 臺灣特別志願兵的回憶』, 臺中: 晨星出版社, 1999.
- 陳千武, 『陳千武文學人生散文集』, 臺中市文化局編印, 2007.
- 陳柏棕, 「日治時期台籍日本兵任務及其境遇之探討: 以分派至中國南洋戰區為例」, 『新北大史學』 第四期, 2006.
- 陳采玉, 「『獵女犯』版本與日譯問題」, 『科學與人文研究』 第2卷第2期, 2013.
- 陳建忠, 「從皇國少年到左傾青年: 台灣戰後初期(1945~1949)葉石濤的小說創作與思想轉折」, 『중국현대문학』 제34호, 2005.
- 陳建忠, 『日據時期臺灣作家論: 現代性·本土性·殖民性』, 臺北: 五南圖書, 2004.
- 何義麟, 「戰後臺灣知識分子的日本觀」, 『跨越國境線: 近代臺灣去殖民化之歷程』, 臺北: 稻鄉出版社, 2007.
- 林佳蓉, 「教科書中沒有的歷史: 臺籍日本兵之研究」, 『北市教大社教學報』 第10期, 2011.12.
- 林志剛, 「人權的演繹(下): 原臺灣人日本兵戰後求償事件記要及展望」, 『律師通迅』 第107期, 1994.
- 潘朝陽, 「肉麻歌頌日本帝國植民主義的臺灣史家周婉窈」, 『海峽評論』 258期, 2012.06.

- 彭瑞金, 『臺灣現當代作家研究資料彙編·葉石濤』, 國立臺灣文學館, 2011.
- 孫水波, 「悲情與自由包藏不住政治意圖: 評周婉窈的‘日據’與‘日治’論」, 『海峽評論』 258期, 2012.06.
- 松永正義, 陳明台 譯, 「戰爭的記憶: 閱讀陳千武」, 『新地文學』 夏季號, 2009.
- 瓦歷斯·諾幹, 「汲取族群文化的養分: 訪詩人陳千武」, 『自由時報』 1991. 2.20.
- 黃自進, 「戰後臺灣主權爭議與中日和平條約」, 『近代史研究所集刊』 第54期, 2006.
- 許佩賢, 『殖民地臺灣近代教育的鏡像: 1930年代臺灣的教育與社會』, 衛城出版社, 2015.
- 詹閔旭, 「華語語系的跨國連結: 臺灣-馬華文學」, 『臺大文史哲學報』 第78期, 2013.
- 周婉窈, 「歷史的記憶與遺忘: 臺籍日本兵之戰爭經驗的省思」, 『當代』 第107期, 1995.
- 문한별, 「공판기록으로 살펴본 일제강점기 후반 독자들의 자발적 문예운동이 가진 특징과 의의」, 『한국언어문학』 제90집, 2014.
- 손준식, 「황민화운동 이전(1895-1936) 타이완의 식민통치 협력자」, 『역사문화연구』 제31집, 2008.10.
- 손지연, 「전쟁 체험의 (사)소설적 재현과 일본군 ‘위안부’표상; 후루야마 고마오의 소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9집, 2015.
- 심정명, 「전후문학과 개별의 윤리: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 『포로기』와 『다시 민도로 섬』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110권, 2017.
- 장지영, 「전후 한일문학자의 전쟁소설 비교연구: 제3국에서 체험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일어일문학연구』 제89집, 2014.
- 조영란,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聖戰을 위한 일그러진 구호: 『보리와 병정』과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살펴본 총력전 시기 전쟁문학에 대한 소고」, 『통합인문학연구』 제4호, 2012.

- 조영일, 「학병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천철휘, 김상호 역, 『과과야 꽃이 피었다』, 서울: 서문당, 1996.
- 최말순 편, 『타이완의 근대문학』 2·3, 서울: 소명출판, 2013.
- 최은주, 「리상란(李香欄)과 이민족간 국제연애, 식민주의적 욕망: 여배우의 페르소나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표상」,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9집, 2014.
- 양태근, 「에스타오를 통해 본 강제된 문명으로서의 식민지 대만과 ‘대만문학」, 『중국현대문학』 제56호, 2011.
- 왕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나는 애도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영어영문학』 제58권4호, 2012.
- 이타가키 류타, 정병욱 편, 『식민지라는 물음』, 소명출판, 2014.
- 하타노 스미오, 오일환 역, 『전후 일본의 역사문제』, 논형, 2016.
-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타이완사 연구소, 『한국과 타이완에서 본 식민주의』, 한울, 2018.
- 후루야마 코마오, 「매미의 추억」, 『슬픈집착, 성애』, 소담출판사, 2005.
- 陳培豐, 『‘同化’의同床異夢: 日本統治下臺灣의國語教育史再考』, 三元社, 2001.
- 野間信幸, 「張文環의從軍演習體驗」, 『東洋大學中國哲學文學科紀要』 17號, 2009.
- 張季琳, 「戰時下の楊逵: 「増産の陰に」をめぐって」, 『臺灣의‘大東亞戰爭’: 文學·メディア·文化』, 東京大學出版會, 2002.
- 後藤乾一, 「元臺灣特別志願兵戰時の東ティモール體驗」, 『アジア太平洋討研』 7호, 2005.05.
- 倉本知明, 「戰場におけるセクシャリティと身體: 田村泰次郎「蝗」と陳千武「獵女犯」の比較を中心に」, 『生存學: 生きて在るを學ぶ』, 2011.

[Abstract]

Experience of Unlamented Dual Identity:

Focusing on Wartime Memoir Novel of Chen
Qian-wu

Koh, Woonsun

Chen Qian-wu (1922-2012) is an author who experienced the Pacific War as a 'soldier on active duty' through the 'Taiwanes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implemented in 1942. He wrote novels based on inner introspection of dual identity realized through diverse wartime experiences and encounter with others. While experiencing both 'elementary school for Taiwanese' and 'elementary school for Japanese' education system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was able to think critically about the meaning of differential treatment against the colonized. In addition, his identity as a Taiwanese person maintained by language (Taiwanese) that was prohibited at the time allowed him to introspect his standing by maintaining certain distance from the situation instead of getting attracted to 'being promoted to a ruler though modern knowledge.' He resisted the 'name changing system' that took place in Taiwan in 1940. He examined problems of the

deteriorating island of Taiwan using nutrients left over by elder authors like Zhang Wenhuan and Yang Kui. At the same time, he could keep a critical attitude toward two-sided (illogical) polici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rs. Such growth process is important because it has many implications about the post-colonial reading strategy in which the colonizer drives cultural development of the colony but the colonized also communicate, resist and create in various ways.

When he returned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national language of Taiwan was changed back to 'Chinese' and he was forced to learn Chinese for over 10 years. He was able to resume writing since 1960s. His novels based on wartime experience do not illustrate 'sex slaves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army' and local 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army. On the contrary, his novels show dual identity of Japanese soldiers from Taiwan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depicting such soldiers as people watched by the militaristic ideology and conspirators who practiced militaristic violence in battlefields. Compared to the Pacific War novels of Japan illustrating similar experiences, his novels are unique in that they do not boil down to the narrative of war humanism that 'We are all victims of war.' Also, when compared to the Pacific War novels of Korea that intend to explain pro-Japanese tendenci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Chen's novels show discriminating views and violence of Japanese soldiers from Taiwan against local natives. Chen Qian-wu presents his own view of the war that even soldiers who were forcibly drafted cannot be freed from the experience of conspiring in the militarism.

Key words: Chen Qian-wu, elementary school for Taiwanese, wartime experiences of the Pacific war, Taiwanese Army Special Volunteer

접수일: 12월 15일, 심사기간: 12월 25일~1월 15일, 게재 확정일: 1월 17일